

IV. 국제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International Relationships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이사 양 정 강

국제 관계의 현황을 생각해보는데는 여러 각도에서의 관찰이 필요 하겠으나 우선 치과의사들의 세계적인 모임인 「국제치과연맹」(FEDERATION DENTAIRE INTERNATONALE) 즉 “ FDI ”와 그 산하지역기구인 “ A POF ”로 약칭되는 「아세아태평양치과연맹」(ASIAN-PAL-IFIC DENTAL FEDRATION)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현황에 앞서 그동안의 참여사를 돌아보면 1958 년 비올빈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2 차 「아세아 치과회의」(ASIAN DENTAL CONGRESS)에서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었고 이듬해인 1959 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47 차 FDI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되었다. 이때 미국 치과의사회 (ADA) 100 년제도 동시에 개최되어 한국대표단이 ADA 모임에 공식적인 첫 참석을 할수 있었다.

아세아 태평양 치과연맹

「아세아 치과회의」는 2 차대회를 치르고 난 이듬해 1959 년도 FDI 뉴욕총회에서 범세계적인 치과조직에 통합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FDI 산하의 지역기구로 편입되어 그 명칭이 「아세아 태평양 치과연맹」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세아 치과회의」는 당초 1955 년 일본이 주동이 되어 첫모임이 동경에서 개최 되었으며 이때 15 개국을 초청했으나 참석한 나라는 일본, 비올빈, 인도네시아, 말라야(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월남, 홍콩, 자유중국등 8 개국이었고 읍서버로 극동에서 근무하던 미국군의관들과 오끼나와 치과의사가 참석하였다.

현재 아태치과연맹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버마,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비올빈,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하는 13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4 명 사무총장, 재무, 편집인, FDI 에 파견되는 대의원 1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하에 2 개의 위원회 즉 “ Committee on Dental Education & Licen Sure ”와 “ Committee on Public Dental Health ”를 두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아태회의 임원진(1981~1984)

President

Dr Oliver Henedige(Singapore)

Vice-President

Dr William W. Wong(Hong Kong)

Dr Jhee Heun-Taik(Korea)

Dr Masao Kubota(Japan)

Dr Ratan H. Doctor(India)

Secretary-General

Dr Low Teong(Malaysia)

Treasurer

Dr Paul F. Swinburn(New Zealand)

FDI Representative

Dr Rizali G. Noor (Indonesia)

Editor

Dr Lim Kheng Ann (Singapore)

Chairman, Public Dental Health

Dr B. T. Homan (Australia)

Chairman, Dental Education and Licensure

Dr Ruben Navia (Philippines)

일년에 두차례 News Letter 를 발간하는 데 편집을 위해 각국에 통신원을 1명씩 임명한다. (사진 A)

아태치과연맹의 활동내용은 FDI 산하 기구로서인지 대회 개최와 News Letter 발간 이외에는 이렇다할 독자적인 활동은 없는것 같다.

아태치과연맹은 대개 3년마다 대회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가입이래 대회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표 2 참조) 1967년도 제 5 차회

ASIAN-PACIFIC DENTAL FEDERATION
asian pacific regional organisation of the federation dentaire internationale

VOL. XIV NO. 2 SEPTEMBER 1982 MC (P) NO. 15/6/82

WORLD HEALTH DAY 7TH APRIL 1982

WHO has designated April 7, 1982 as World Health Day. We are pleased to reproduce below an abstract of a message from Dr H Mahler,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for World Health Day 1982.

Aging is not simply a physical process but a state of mind and today we are witnessing the beginning of a revolutionary change in that state of mind. In the past, and especially in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aging implied enforced retirement, loss of physical functions and mental capacity, accompanied all too often with isolating the individual from the normal activities of society. The aged person was considered as suffering from an irreversible form of illness and was treated like a sick child.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with its emphasis on primary health

care, necessarily includes the participation of the aging, who often know best what is needed and how it should be carried out.

The theme of this year's World Health Day coincides with that of the United Nations World Assembly on Aging. Both stress the urgency of meeting the special needs of the aging while contributing to a profound change in attitudes. The elderly are a group requiring special needs in nutrition, hygiene and in exercise.

Governments will have to be careful not to establish situations that cut off the aged from the work they want

to and are able to perform. But perhaps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aged to a human one, they can add something to those around them by their presence and life experience. Education is not something dispensed only in schools and based on books; it is the distillation of life's experience. Only someone who has lived through the momentous events that have marked the twentieth century everywhere and reflected on them can help younger generations understand how we arrived at our situation today and what we can do to make tomorrow better.

It is in this spirit of respect for the highest human values and a desire to maintain solidarity with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that WHO wishes to see the slogan "Add Life To Years" celebrated and acted upon throughout the world.



Fourth Burma Dental Conference, January 8-11, 1982, Rangoon, Burma. Professor Aung Than, the President of BDA acting as the Chairman and addressing the opening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표 2. 아세아태평양 치과연맹회의(APOF) 개최 연혁 및 예정지

| | | | |
|------|-------|------|---------|
| 1955 | 일 본 | 1977 | 비 율 빈 |
| 1958 | 비 율 빈 | 1979 | 말 레 지 아 |
| 1961 | 일 본 | 1981 | 싱 가 폴 |
| 1964 | 싱 가 폴 | 1984 | 홍 콩 |
| 1967 | 한 국 | 1986 | 한 국 |
| 1970 | 타 이 | 1988 | 인 도 |
| 1974 | 인도네시아 | 1990 | 태 국 |

의는 한국에서 개최된바 있다.

1981년도 10차 모임인 싱가포르대회에는 57명의 한국대표단이 참가하였고 1977년 8차 대회부터는 학술발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에서는 회장으로 1명 부회장으로 4명이 피선된바 있다.

아태치과연맹 소속국가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FDI로 진출하여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비율빈도 지난해 10월 비엔나총회에서 1986년도 FDI 총회 개최국으로 채택될 만큼 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국가들의 아태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11차대회는 1984년 11월 홍콩에서, 그리고 12차대회는 1986년에 한국서 개최될 예정이다.

근 20년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된만큼 그동안 한국이 과연 얼마나 변모했고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를 이웃나라 치과인들에게 보여 주어야될 책임이 한국치과계에 지워진 과제 중의 하나 이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그 준비 작업을 활성화 해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치과연맹

해마다 열리고 있는 FDI 총회에 한국은 1959년에 가입한 이후 1970년도 까지는 간헐적으로 참석하다가 1971년도 부터는 매회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70

표 3. 국제치과연맹(FDI)회의참석 연혁 및 개최 예정지 여여

| | |
|------|----------------|
| 1959 | 미국·뉴욕(47차) |
| 1962 | 독일·뮌헨 |
| 1967 | 불란서·파리 |
| 1969 | 미국·뉴욕 |
| 1971 | 독일·뮌헨(59차) |
| 1972 | 멕시코·멕시코시티 |
| 1973 | 호주·시드니 |
| 1974 | 영국·런던 |
| 1975 | 미국·시카고 |
| 1976 | 그리스·아테네 |
| 1977 | 캐나다·토론토 |
| 1978 | 스페인·마드리드 |
| 1979 | 불란서·파리 |
| 1980 | 독일·함부르크 |
| 1981 | 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 |
| 1982 | 오스트리아·비엔나(70차) |
| 1983 | 일본·동경 |
| 1984 | 핀란드·헬싱키 |
| 1985 | 유고슬라비아·벨그라도 |
| 1986 | 비율빈·마닐라 |

차대회에는 18명의 대표단이 참석할바 있다.

(표 3 참조)

그동안 70회의 FDI 총회는 대부분 구미지역에서 개최되었는데 기타지역으로는 1973년도 61차 대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1981년도 69차 모임이 남미 브라질에서 있었고 바로 금년11월에 71차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어 아세아지역에서는 최초로 FDI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FDI는 85개국의 치과의사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것을 합하면 100여 개국에 달하는 명실상부하는 치과인의 국제기구인

것이다.

물론 FDI는 구라파에서 발족되어 오늘날에도 구라파중심으로 운영되는 모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탈퇴 1년 만에 재가입한 ADA (미국치과의사회)를 불패 역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FDI는 근년에 와서는 150여개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와도 협동으로 치과계의 문제점들을 의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FDI의 조직을 보면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 재무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정점으로해서 4명의 부회장단과 4명의 자문위원, 의장 1명, 지역 기구로는 구라파지역, 아바지역, 라틴아메리카지역의 3개지역기구가 있으며, New letter 와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을 판장하는 편집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DI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Fédération Dentaire
Internationale
64 Wimpole Street
London W1 M 8 AL

N° 126 November 1982

English Edition

A 222 41 F

Join the FDI in Tokyo - Japan's big city

The 71st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of the FDI is to be held in Tokyo, from the 14th to 20th November 1983. The dentists of Japan look forward with great pleasure to the honour of hosting this Congress, the largest and most international ever to be organized by the Japanese dental profession.

The Japanese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is planning a very full and varied social programme to offer to our colleagues from around the world.

Japan is composed of a chain of islands situated at the easternmost point of the Asian continent. Tokyo, its capital city and the Congress venue, has 11 million inhabitants and i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entre of the country.

Throughout its 2000-year long history, Japan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influx of various cultures, mainly Asian. In more recent times, Japan has succeeded in harmonizing Western



The view of the former Edo castle from the grounds of the Imperial Palace in Tokyo.

ways with its own time-honoured traditions by adopting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deology of the West.

The Congress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in the Budokan Hall situated in the Kitanomaru Park in the grounds of the Imperial Palace. All subsequent scientific sessions will be held in the Hotel New Otani. The hotel which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justly

boasts numerous and large scale congress facilities.

As regards social events, the Japanese Organizing Committee will hold a traditional Japanese dinner party and a Japan Night for your enjoyment, during which they will put on a variety of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A ladies lounge will also be set up in the hotel at which participants wives will be given the chance to learn the basics in the art of floral arrangement and on how to conduct a traditional tea ceremony.

November, the month of the Congress, is at the height of autumn and a pleasant season for excursions in Japan. The Organizing Committee will be offering a variety of tours, to introduce the principal sights of Tokyo, as well as places of historical and scenic interest and traditional arts and crafts centres. You will also be introduced to Japanese cuisine. Of equal interest will be the opportunity of seeing the use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of cars and robots. There will also be ample opportunities to do some worthwhile shopping.

Several pre and post Congress tours are also being organized to enable participants to fully enjoy the many beautiful natural phenomena and the splendid historical monuments which abound in this country.



Kvornizur temple in Kyoto.

Dr. Katsuo Tsurumaki

- 1) Commission on Oral Health Research and Epidemiology
- 2) Commission on Dental Education and practice
- 3) Commission on Dental products
- 4) Commission Defence Forces Dental service

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수명, 자문위원 수십명으로 구성되어 이들은 위임 받은 과제들을 연구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보고된 내용들은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등을 통해서 발표한다.

Newsletter는 격월로 발간되고 있으며 FDI의 움직임과 세계각국 치과계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다. (사진 B)

한국은 FDI 총회에 참가하는 수가 근년에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임원이나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진출은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자문위원으로 단 1명이 79년도에 임명되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학술발표에는 한번도 참여한바가 없다.

금년 11월 동경에서의 FDI 대회에는 바로 이웃 일본에서 개최 되느니 만큼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며 86년도 아태치과연맹 대회를 치른후 일본, 비올빈, 그리고 FDI 총회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심가풀 다음으로 한국도 FDI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FDI나 아태치과연맹과는 그성격을 달리하여 학술적인 연구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국제적인 모임으로 국제치과연구학회 (IADR)가 있는데 이는 1920년 미국뉴욕에서 창립되어 현재 세계각국의 6,000명 이상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 1980년 58차대회가 일본 대판에서 열려 이때 한국은 30명에 가까운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그후 한국은 12번째로 지부결성이 인정

되었다.

이모임은 학술적인 내용이 주가 되므로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주로 참석하게 된다. 주로 미국에서 개최되던 모임이 이제는 3년에 한번은 미국이외의 장소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이 12번째로 지부로 인정받은것을 계기로 학술적인 교류에 많은 성과를 기대해본다.

치과의 분과별로도 국제적인 조직이 있어서 그 예로 소아치과학회는 1981년 스위스에서 8차국제소아치과학회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바 있고 9차모임이 오는 2월 21일부터 호주 멜본에서 개최되는데 10여명의 한국소아치과학회 회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나 "THE PIERRE FAUCHARD ACADEMY"와 같이 미국 개업치과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설해서 세계 각국으로 퍼진 친목을 주로 도모하는 국제적인 모임이 근년에 한국에도 전해져서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사들의 국제적인 교류중에 친선을 주로 도모하는 또다른 형태로는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를 방문하기도 한다.

세계각국에서 자기나라 학술대회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중 미국치과사회의 년차대회에는 그동안 몇차례 한국대표단을 파견한바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형태의 국제적인 교류가 근래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활발해 진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문제점들도 적지 않은것으로생각하면서 대한치과협회사에 기록된 한구절을 인용해본다.

"한국치과사들은 국제적치과회의가 있을때마다 관계당국의 여권제한을 받으면서도 참가 희망자는 늘기만 하고 세계각국의 치과사들과 학술 교류 및 우의를 갖는 가운데 어언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치협은 세계속의 한국치과학으로 향상 발전시켜왔으며 1986년에 개최될 제 12회 아태치과연맹총회를 온갖 어려움속에서 한

국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할 만큼 국제적인 실력자로 성장했다고 볼수있겠다.

지나친 열등의식도 문제가 되겠으나 어울리지 않는 자만은 더욱 삼가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치과계는 결코 국제적인 실력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진정 실력자가 될것이다.

근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회의나 학회에 대한 충실한 참여보다 관망에 더많은 정력을 쏟은것은 아닌지?

이제는 국제회의 참가의 본래목적보다 충실히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각종국제회의를 다녀온후에는 그결과를 치협 기관지를 통해 보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각국 치과계소식도 수시로 전회원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충실한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서 일본과 미국중심에서 시야를 넓혀 보다 한국적인 치과학의 창출은 시도할 필요는 없을런지?

그동안의 국제회의의 참여는 대개 개인적인 경제 부담으로 이루어져 국제회의에 관한 경험이 단절되는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앞으로는 협회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후원으로 국제적인 인재를 배출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중요한것은 학술강연이나 연구위원으로 나설수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 있도록 그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치과인 모두 힘을 합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세계속에 한국치과계를 오늘 만큼이라도 부각시킨 선배 치과인들의 노고에는 그고마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리라 믿는다.

◇ 토막소식 ◇

◎ 모구리 척결에 總力

— 金東順회장, 새해 重點사업 밝혀 —

金東順齒協회장은 부정의료 행위의 척결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펴겠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새해 출발과 함께 복지국가건설의 시대적 大命題아래 齒協을 비롯한 각 치과의사 단체가 치과계 정화운동에 솔선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상 확립과 명량한 진료풍토조성을 위해 무면허의료, 면허대여, 부정기공물 제작, 부정기자재 유통, 과대광고 행위등 여러해 동안 치과계에서 누적 되어

온 당면과제 정화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모구리 척결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金회장은 부정의료업자의 척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전국치과의사의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우선 지도치과의사제의 강화로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근절하고 부정기자재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회장은 부정의료업자의 척결이 치과진료의 명량화와 함께 클리닉 수익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분회·지부·齒協등 지역별로 일체가 되어 온갖 지혜를 동원, 총력전을 전개하자고 거듭 강조했다.